

# 제스프리, 키위종주국 중국을 강타하다

베이징지사

## 키위 원산지 중국

- 중국은 약 1,300년 전부터 키위 재배 역사를 가진 키위의 원산지이다. 중국산 키위 품종만 해도 약 160여 종에 육박하고, 재배면적은 약 26만ha로 중국의 키위 재배면적은 전 세계 키위 재배면적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
- 최근에는 산시(陝西), 쓰촨(四川), 윈난(云南) 지역 등이 주요 생산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홍양(紅陽)', 쉬씨양(徐香) 등의 품종이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해마다 생산량이 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키위 생산량만으로는 거대한 시장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데다 프리미엄 키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키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간 키위 수입량은 약 11만 톤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 제스프리의 중국시장 공략법

- 전 세계 키위 판매량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뉴질랜드 키위브랜드 제스프리는 2015년부터 중국 현지재배를 야심차게 시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하이에서 개최된 신제품 발표회에서 제스프리 최고경영자는 “중국시장 판매액은 현재 제스프리 전 세계 판매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4년 내에 2배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중국시장에서의 성장을 자신했다. 제스프리는 지난 2년간 산시성과 허난성 생산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구매, 포장, 판매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현지에서 재배된 그린키위와 레드키위를 출시할 계획이다.

- 제스프리가 이와 같이 중국시장 선점에 열중하는 이유는 중국의 키위수요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 중국산 저품질 키위생산의 민낯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키위는 재배부터 수확까지의 전 과정에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고 재배기술의 규격화가 미흡해 농가들이 품종 선택과 재배 방법 선정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선호 트렌드가 맞물려, 2017년 제스프리를 앞세운 뉴질랜드 키위의 대중 수출량은 약 8만 톤으로 증가하며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뉴질랜드 키위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 고품질키위, 선택과 집중을 더하다

- 선진화된 재배와 관리 외에도 제스프리가 중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선택과 집중'의 강력한 브랜드 전략이 손꼽히고 있다. 오로지 키위 한 품목에만 집중하며,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제스프리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키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된 것이다.